

Kstat Report

66호 || 2023년 1월 12일

신년특집 ①

2023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국민희망

■ 2023년, 분야별 국민 희망

- _ 정치 : '공정한 검찰수사'와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공정한 검찰수사' 1위 희망
- _ 경제 : '물가 하락', '고용안정', '국가경제 성장' 높아
2050세대 '물가 하락' vs 60대 '국가경제 성장'
- _ 사회 : '공정한 사회 구현' 가장 높아
거의 대부분 계층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 높아
- _ 국제.북한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압도적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한미동맹'도 중요하게 생각

■ 2023년 전체, 국민 희망

- _ '물가하락', '고용안정, 일자리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 _ 계층별 희망사항, 다소 달라
- _ 국민 희망사항,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할 것'으로 생각

■ 작년과 비교, 2023년 전망

- _ 2023년 대한민국, '작년보다 나빠질 것' 47%
- _ 2023년 내 삶, '작년보다 나빠질 것' 7%p 상승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1월 6일(금) ~ 1월 8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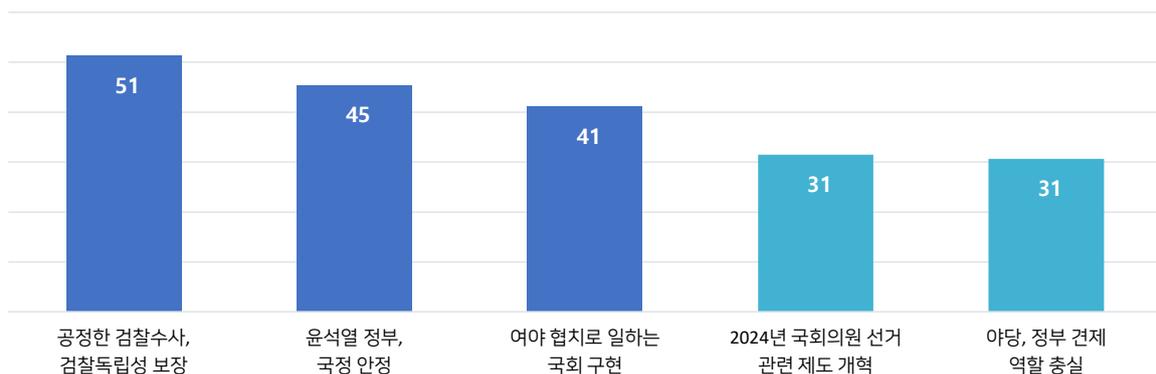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023년, 분야별 국민 희망

□ 정치 : '공정한 검찰수사'와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

- 2023년에 예상되는 정치 이슈 중, 국민들이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공정한 검찰수사, 검찰독립성 보장'이 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45%), '여야 협치로 일하는 국회 구현'(41%)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예상 정치 이슈는 다음과 같이 5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2개를 선택한 결과임
 - ①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
 - ② 야당, 정부 견제 역할 충실
 - ③ 여야 협치로 일하는 국회 구현
 - ④ 2024년 국회의원 선거관련 제도 개혁
 - ⑤ 공정한 검찰수사, 검찰독립성 보장
- 다음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제도 개혁'과 '야당, 정부 견제 역할 충실'이 공히 31%로 조사됨

정치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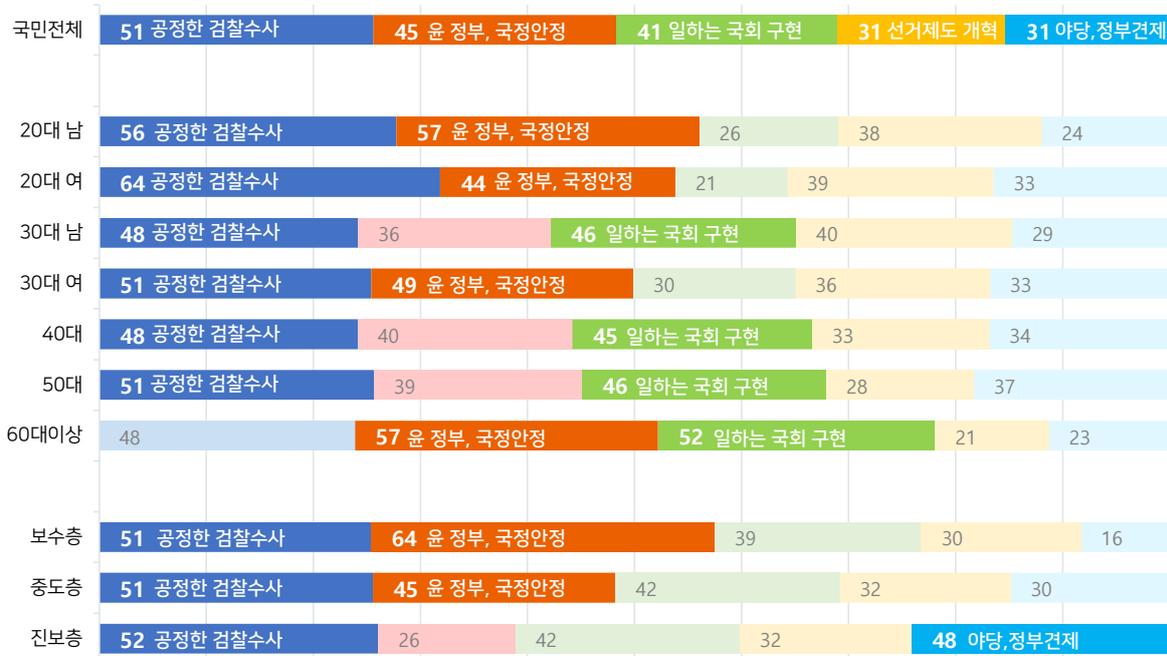
Kstat Point

- ☑ 2023년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해로, 모든 정치 이슈가 총선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언론·정치권이 관심을 두는 것 역시, 새 지도부가 22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임
- ☑ 이에 2023년 정치권은 정국 주도권 및 국민여론 획득을 위한 여야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 기본 정치 구도는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론 vs 야당, 정부견제론'이 대립하고,
 - : 이슈적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됨
 - : 또한 중대선거구제 등 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혁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전망에 따른 정치분야 이슈 중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이슈는 '공정한 검찰수사, 검찰독립성 보장'으로 나타남
 - :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비판적인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즉, 지금의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검찰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론 vs 야당, 정부견제론'을 비교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론'이 우세함
 - : 참고로 22대 총선결과 기대감은 '야당 다수 당선' 여론이 52%로 '야당 다수 당선'(41%)보다 높음(한국갤럽 조사)
 - : 이러한 차이는 조사문항의 차이 때문이자,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국민들은 '여야 협치로 일하는 국회 구현'을 세 번째로 많이 꼽았는데, 총선을 앞둔 2023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실현가능성이 낮음
 - : 국회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에 주목할때, 정치개혁·공천개혁을 추진하는 정당이 국민여론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공정한 검찰수사' 1위 희망

- 정치 분야 중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성/연령에서 '공정한 검찰수사'가 1위로 나타남
 - 60대 이상도 48%를 기록, 절대적 비중 면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위는 성/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남
 -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 2위 : 20대 남녀, 30대 여
 - '여야 협치로 일하는 국회 구현' 2위 : 30대 남, 4050세대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1위는 '공정한 검찰수사'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2위는 다름
 - 보수·중도층은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을 꼽았고, 진보층은 '야당, 정부 견제 역할 충실'을 꼽음

정치 분야,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3.01.08조사,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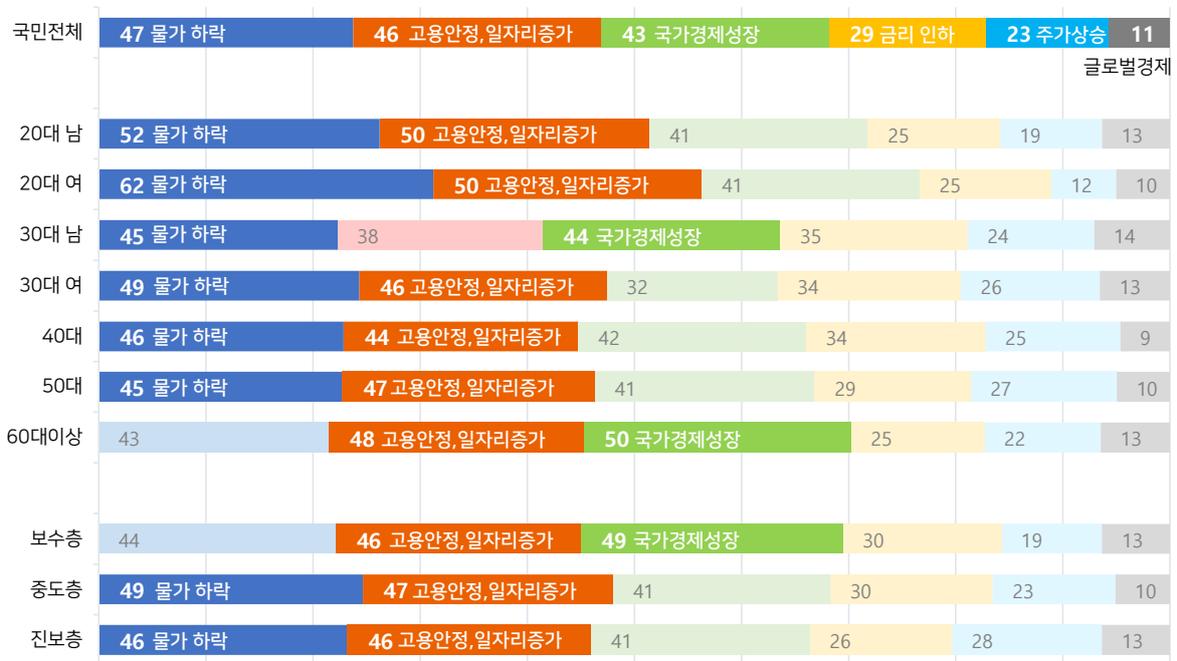
- ☑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공정한 검찰수사, 검찰독립성 보장'이 1위로 나타나,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우려를 포함
 -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여론은 '적법한 검찰권 행사, 문제없다' 51% vs '야당 겨냥 표적수사, 문제있다' 43%로 문제없다는 의견이 소폭 우세함(MBC-코리아리서치, 2022년 12월29일 조사결과)
 -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적법하지만, 공정성과 검찰독립성 측면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이념별 희망사항 2위를 살펴보면, 보수층과 진보층의 희망이 확연히 대비됨
 - : 보수층은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 여론이 64%로 매우 높지만, 진보층은 '야당, 정부견제' 여론이 48%로 높음
 - :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국정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이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됨
- ☑ 성/연령별 2위를 보면, 2030세대는 '윤 정부, 국정안정'을(30대 남 제외), 4050세대는 '일하는 국회'를 꼽음
 - :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2030 여성이 '윤 정부, 국정안정'을 희망하는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대통령에 대한 선호 여부를 떠나, 국가사회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읽힘

□ 2050세대 '물가 하락' vs 60대 '국가경제 성장'

- 경제 분야 중 가장 희망하는 것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물가 하락'이 1위를 차지함
 - 60대 이상과 보수층만 '국가경제 성장'이 1위를 기록함
- 2위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용안정, 일자리 증가'로 나타남
 - 2050세대와 중도·진보층은 '고용안정, 일자리 증가'가 2위를 기록함
 - 다만, 30대 남자는 '국가경제 성장'이 2위를 기록하는 차이를 보임
 - '국가경제 성장'이 1위를 기록한 60대 이상과 보수층도 2위는 '고용안정, 일자리 증가'가 차지함

경제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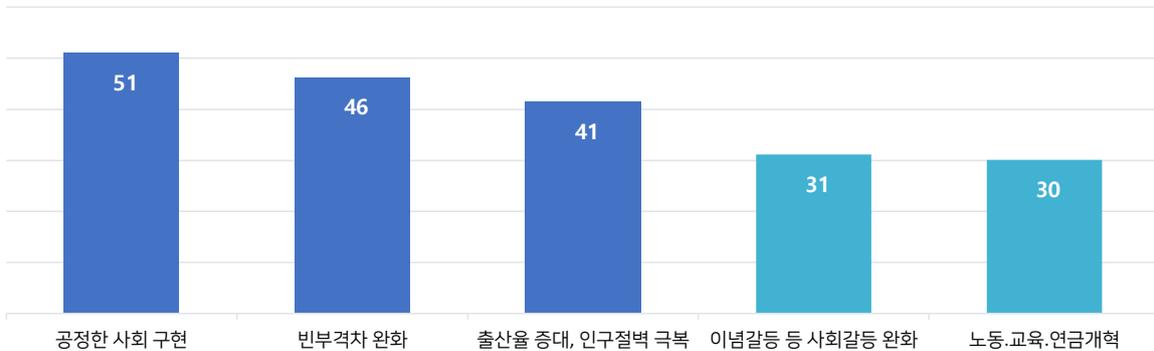
Kstat Point

-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물가하락'과 '고용안정, 일자리 증가'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2023년 경제가 나쁜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 : 작년 2022년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에 따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이에 따른 추가하락과 부동산가격 급락 등이 이어졌지만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은 아니었음
 - : 그러나 2023년은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침체가 현실이 되고, 물가도 더 상승하지는 않아도 고물가가 유지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실시되고 있음
 - : 경기침체는 곧바로 고용불안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기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임
- ☑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임
- ☑ 현재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수출'에서 찾고 있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계층은 30대 남자, 60대 이상, 보수층에 한정되어 있음
 - : 다른 계층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대부분 3위이고, 40% 이상을 기록함), 호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함
 -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수출중대와 함께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고용안정' 관련 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 : '공정한 사회 구현' 가장 높아

- 사회 이슈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공정한 사회 구현'(51%)으로 나타남
 - 2023년 사회 이슈는 다음과 같이 5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2개를 선택한 결과임
 - ① 출산율 증대, 인구절벽 극복
 - ② 이념갈등 등 사회갈등 완화
 - ③ 공정한 사회 구현
 - ④ 노동·교육·연금개혁
 - ⑤ 빈부격차 완화
- 다음으로 '빈부격차 완화'(46%), '출산율 증대, 인구절벽 극복'(41%)이 뒤를 이음
- 다음으로 '이념갈등 등 사회갈등 완화'(31%), '노동·교육·연금개혁'(30%) 순임

사회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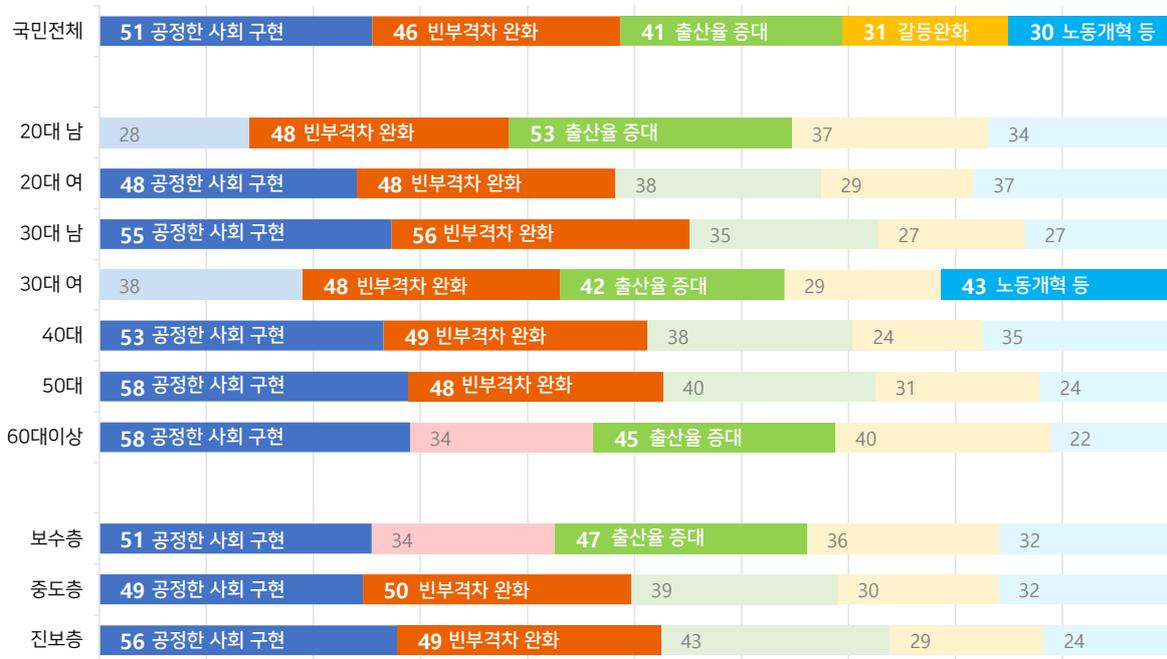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이 2023년에 가장 원하는 사회 모습은 '공정한 사회'로 나타남
 - : 지난 총선과 대선의 핵심 아젠다였던 '공정'이 재차 강조되는 양상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
 - : 앞서 정치 이슈에서 '공정한 검찰수사, 검찰독립성 보장'이 1위를 기록한 데서 보듯,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정치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 '빈부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도 강함
 - : 코로나19 발발 및 극복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현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큰 것으로 보임
 - : 특히 '이념 갈등 등 사회갈등 완화'보다 '빈부격차 완화'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해, 국민통합의 내용 역시 이념 갈등보다 빈부격차 완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임
- ☑ 또한 '출산율 증대, 인구절벽 극복'에 대한 국민 희망도 높은 수준임
 - : 우리 사회는 2021년에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인구가 감소함(자료 :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 : 이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 65세 이상 비중이 약 34%가 되고, 2070년에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노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국민들 역시 이러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한편,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교육·연금개혁'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함
 -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함께 수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거의 대부분 계층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 높아

- 성/연령별,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이 1위로 나타남
- '공정한 사회 구현'이 1위가 아닌 성/연령은 20대 남자와 30대 여자임
 - 20대 남자 1위는 '출산율 증대, 인구절벽 극복'이고, 30대 여자 1위는 '빈부격차 완화'로 조사됨
- 2위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빈부격차 완화'가 차지함
 - 60대 이상과 보수층은 '빈부격차 완화' 대신 '출산율 증대, 인구절벽 극복'이 2위를 기록함
 - 한편, 30대 여자는 '노동·교육·연금개혁'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함

사회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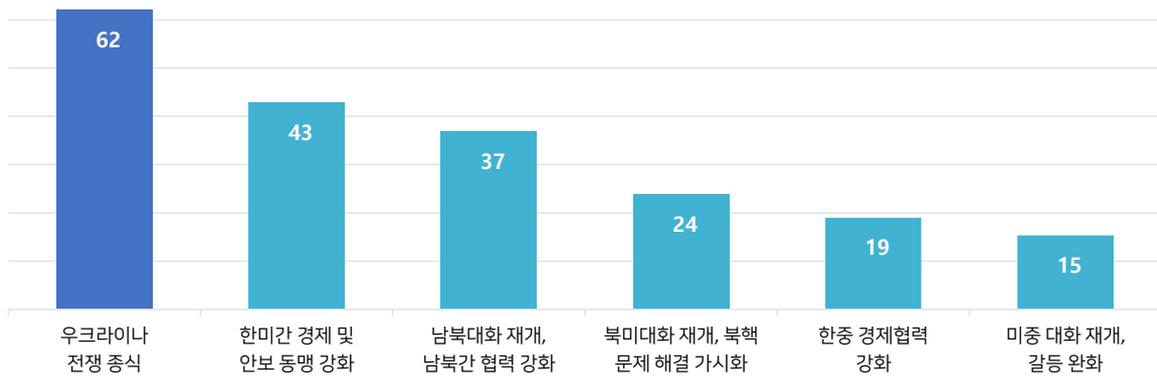
Kstat Point

- ☑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한 희망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강하게 나타나, 우리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임
 - : 다만, 20대 남자의 경우 지난 총선·대선에서 '공정사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성/연령인데, 이번 조사에서 그 요구가 매우 축소됨
 - : 이들이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한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임
- ☑ '빈부격차 완화'의 경우 중도·진보층은 비중이 매우 높은 데 비해 보수층은 적음
 -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50세대는 '빈부격차 완화'를 중요하게 희망하지만, 60대 이상은 그렇지 않음
 - : 즉, '빈부격차 완화'는 보수/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이자, 2050세대와 60대 이상을 구분하는 이슈임

□ 국제.북한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압도적

- 2023년 예상되는 국제.북한 이슈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62%)으로 나타남
 - 2023년 국제.북한 이슈는 다음과 같이 6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2개를 선택한 결과임
 - ① 미중 대화 재개, 갈등 완화
 - ② 한중 경제협력 강화
 - ③ 북미대화 재개, 북핵문제 해결 가시화
 - ④ 남북대화 재개, 남북간 협력 강화
 - ⑤ 한미간 경제 및 안보 동맹 강화
 - ⑥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 다음은 '한미간 경제 및 안보 동맹 강화'(43%), '남북대화 재개, 남북간 협력 강화'(37%) 순임
- 뒤를 이어 '북미대화 재개, 북핵문제해결 가시화'(24%), '한중 경제협력 강화'(19%), '미중 대화 재개, 갈등 완화'(15%) 순으로 조사됨

국제.북한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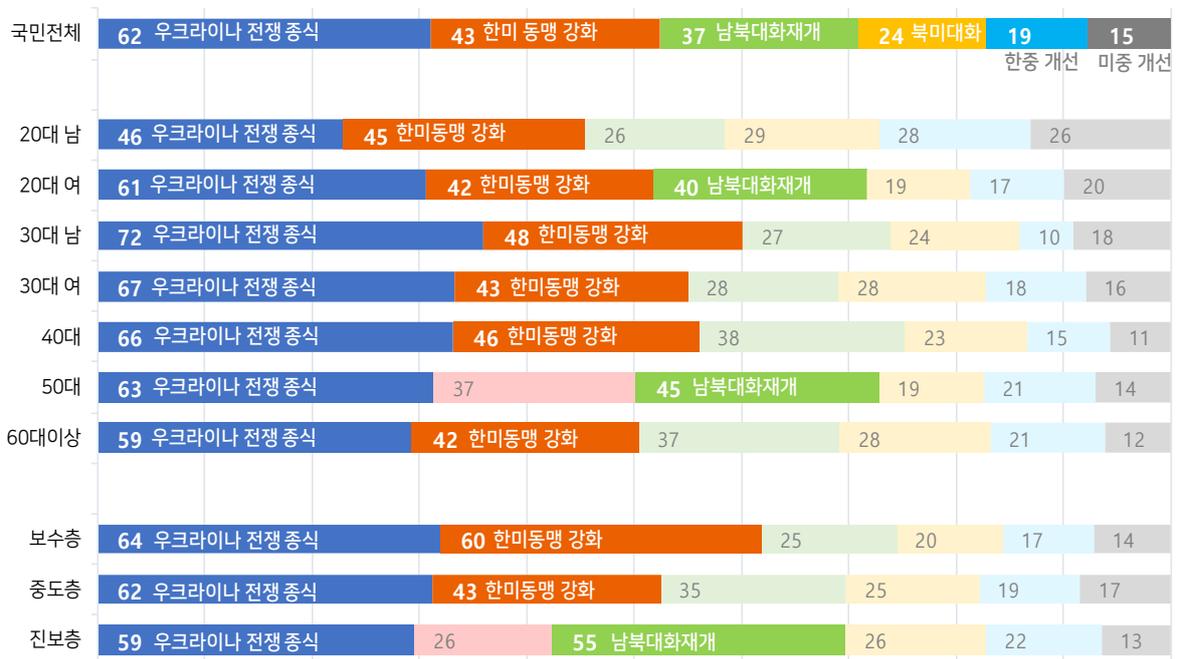
- ☑ 국제.북한 이슈에 대한 국민 희망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미간 경제 및 안보동맹 강화'로 요약됨
 - : 북핵 문제와 관련한 남북대화 재개와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희망은 상대적으로 적음
 - :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임
 - :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한미 안보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적 우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미중관계 개선 및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매우 적음
 - :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추진되고, 그 목표가 중국 배제라는 점이 뚜렷해지면서 미중 대화에 대한 기대를 버린 것으로 보임
 - : 이 연장선에서 한중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모습임
 - : 앞서 북한 위협 해법으로 한미 안보동맹 강화를 선호한 것처럼, 한미간 경제동맹 강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중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고, 중국은 일본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53호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참고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외 '한미동맹' 중요하게 생각

- 국제.북한 이슈에 대한 응답을 성/연령별, 이념별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미동맹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함
- 다른 계층과 달리 50대와 진보층은 '한미동맹 강화'보다 '남북대화 재개'를 중시함
 - 20대 여성은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대화 재개' 의견이 팽팽함

국제.북한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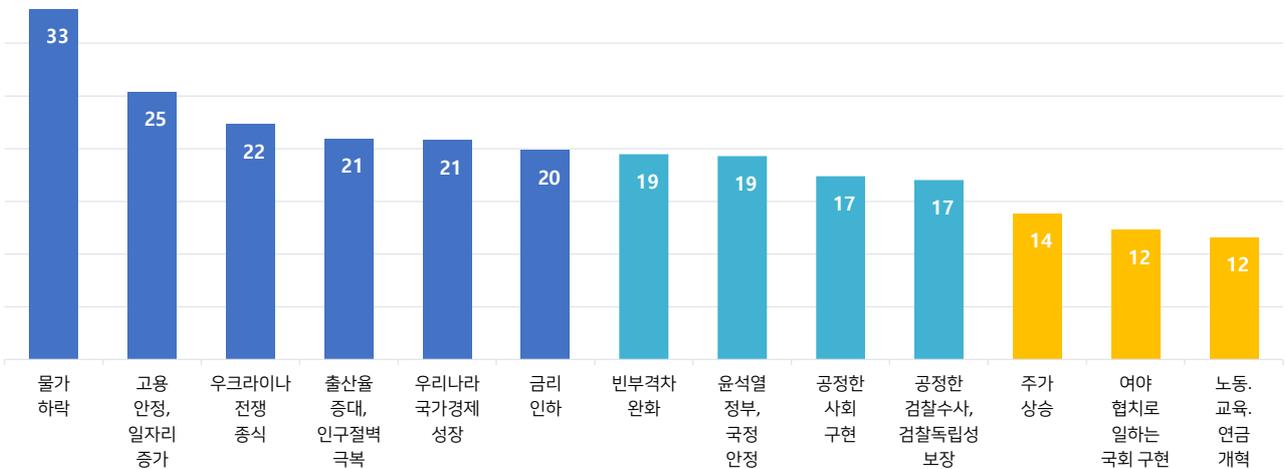
- ☑ 모든 계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희망 사항 1위를 기록함
 - : 인도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희망하는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즉,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임
- ☑ 한편,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해법으로 '남북대화 재개'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한 것이 주목됨
 - : 작년 조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보다 '남북대화 재개'를 원하는 계층이 4050세대와 진보층이었으나, 올해는 40대가 이탈하고 50대와 진보층으로 축소됨(상대적으로 약하지만 20대 여성이 추가됨)
 - : 윤석열 정부 역시 남북대화 재개 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우려가 있지만, 지금의 국민여론은 이에 동의하는 양상임

2023년 전체, 국민 희망

‘물가하락’, ‘고용안정, 일자리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 우리 국민들이 2023년 대한민국에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물가 하락’(33%)으로 나타남
 - 각각의 응답자가 ‘분야별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으로 선정한 이슈들을 모두 제시하고, 그중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 3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 다음으로는 ‘고용안정, 일자리 증가’(25%),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22%), ‘출산율 증대, 인구절벽 극복’(21%), ‘우리나라 국가경제 성장’(21%), ‘금리 인하’(20%) 순으로 응답함
- 그 다음으로는 ‘빈부격차 완화’(19%),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19%), ‘공정한 사회 구현’(17%), ‘공정한 검찰수사, 검찰독립성 보장’(17%) 등임
- 그 뒤를 이어 ‘주가 상승’(14%), ‘여야 협치로 일하는 국회 구현’(12%), ‘노동.교육.연금개혁’(12%) 등으로 조사됨

2023년 전체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Kstat Point

- ☑ 2023년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 사항 Top 13중 1위는 ‘물가 하락’으로, 국민적 희망이 집중됨
 - : Top 13은 10% 이상을 기록한 이슈들임
- ☑ Top 13 이슈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가 5개로 가장 많음(물가하락, 고용안정, 국가경제 성장, 금리인하, 주가상승 등)
 - : 다음은 사회 분야 4개(출산율 증대, 빈부격차 완화, 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개혁), 정치 분야 3개(윤 정부 국정안정, 공정한 검찰수사, 일하는 국회 구현), 국제.북한 분야 1개(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임
- ☑ 20% 이상의 상위 Top6로 한정하면 경제가 4개, 사회 1개, 국제.북한 1개 등으로 경제이슈가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음
 - : 그만큼 2023년은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계층별 희망사항, 다소 달라

- 2023년 대한민국에 희망하는 상위 이슈는 성/연령별, 이념별로 대체로 비슷함
 - 대부분의 계층에서 1위, 2위는 '물가 하락'과 '고용안정, 일자리 증가'로 나타남
 - 50대는 국민 전체 상위 이슈와 순위만 다를 뿐 이슈 자체는 동일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과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상위 6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국민 전체 상위권 이슈와 계층별 상위권 이슈가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20대 남자 추가 이슈 : 공정한 검찰 수사, 빈부격차 완화 (빠진 이슈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금리인하)
 - 20대 여자 추가 이슈 : 빈부격차 완화, 공정사회 구현 (빠진 이슈 : 국가경제 성장, 금리인하)
 - 30대 남자 추가 이슈 : 빈부격차 완화, 공정사회 구현 (빠진 이슈 : 고용안정, 출산율 증대)
 - 30대 여자 추가 이슈 : 주가 상승 (빠진 이슈 : 국가경제 성장)
 - 40대 추가 이슈 : 빈부격차 완화 (빠진 이슈 : 출산율 증대)
 - 60대이상 추가 이슈 : 윤 정부 국정안정, 일하는 국회 (빠진 이슈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금리 인하)
 - 보수층 추가 이슈 : 윤 정부 국정안정 (빠진 이슈 : 금리 인하)
 - 중도층 추가 이슈 : 빈부격차 완화 (빠진 이슈 : 국가경제 성장)
 - 진보층 추가 이슈 : 공정사회 구현, 공정한 검찰수사 (빠진 이슈 : 국가경제 성장, 금리 인하)

2023년 전체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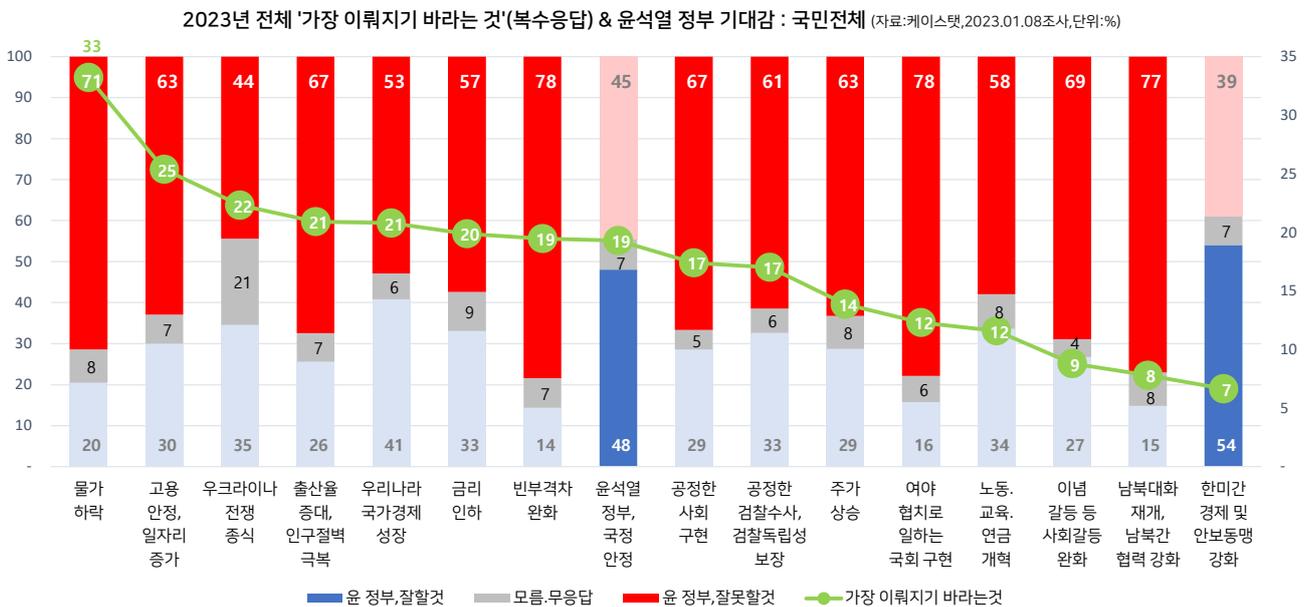


Kstat Point

- ☑ 2050세대와 60대이상의 인식 차이가 있는데, 기준 이슈는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과 '일하는 국회'임 : 또한 2050세대 안에서는 '빈부격차 완화'를 기준으로 2040세대와 50대가 구분됨(30대 여자 예외)
- ☑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윤 정부 국정안정'을 중시하고, 중도층은 '빈부격차 완화', 진보층은 '공정사회 구현'과 '공정한 검찰수사'를 중시하는 차이를 보임

□ 국민 희망사항,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할 것'으로 생각

- 2023년 대한민국에 희망하는 이슈에 대해,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할 것으로 생각함
 - 각각의 응답자가 '분야별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으로 선정한 이슈들을 모두 제시하고, 이들 이슈들을 윤석열 정부가 잘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잘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임
- 상위 총 16개 이슈 중에서 '잘 할 것이다'는 응답이 우세한 이슈는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과 '한미간 경제 및 안보동맹 강화' 등 2개로 나타남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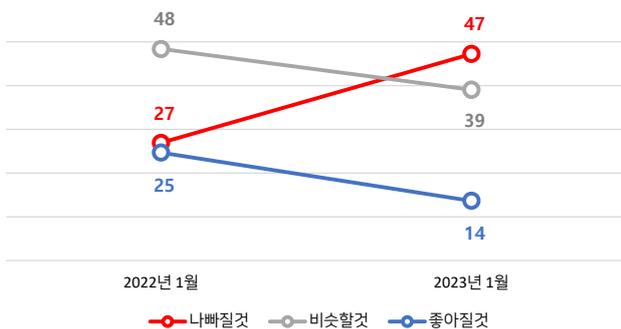
- ☑ 2023년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 사항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잘 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슈는 '윤 정부, 국정안정'과 '한미동맹 강화' 2개에 그침
 - :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전후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기대감이 약한 것은 이해되는 지점임
- ☑ 기대감이 가장 높은 이슈는 '한미 동맹 강화'(54%)이고, 낮은 이슈는 '빈부격차 완화'(14%)와 '남북대화 재개'(15%), '여야 협치로 일하는 국회 구현'(16%) 등임
 - :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이슈는 '국가경제 성장'(41%),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35%), '노동, 교육, 연금개혁'(34%) 등임
-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국민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희망이 높은 '물가하락'과 '고용안정' 등 경제이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외 경제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낮음

▶ 작년과 비교, 2023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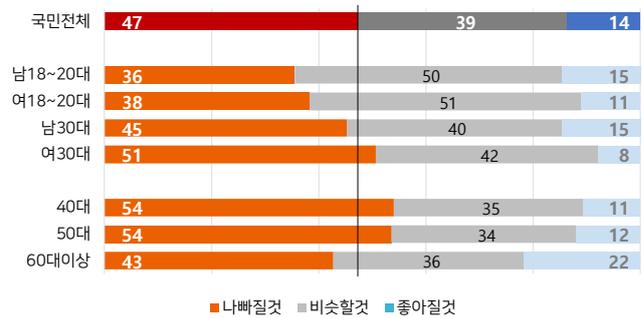
□ 2023년 대한민국, '작년보다 나빠질 것' 47%

- 국민들은 올해 대한민국이 '작년보다 나빠질 것'(47%)이라고 생각함
 - “선생님께서서는 올해(2023년) 우리나라가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 비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0%p 상승함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나빠질 것' 47% 기준선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4050세대 △호남 △진보층 △주부 △200~4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소득층 등임
-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이상 △보수층 △은퇴.무직자 △400~6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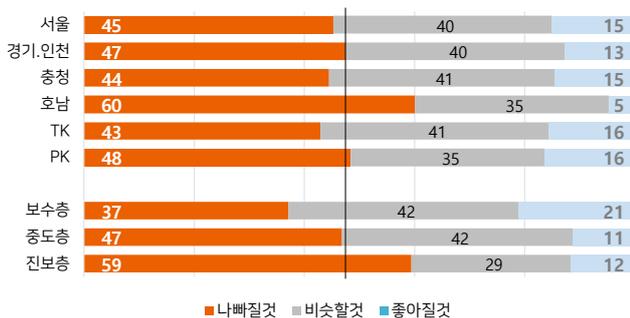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대한민국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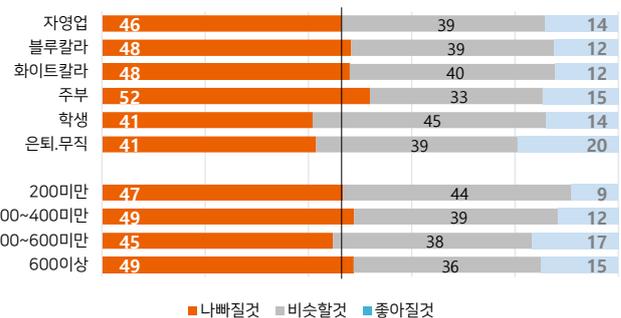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대한민국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 대한민국 전망 : 지역별,이념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 대한민국 전망 : 직업별,소득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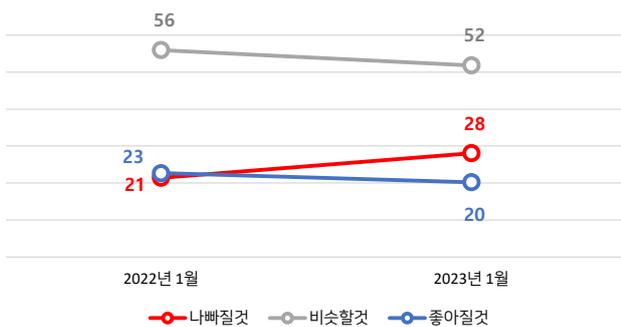
Kstat Point

- ☑ 2023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민전망은 매우 어두우며, 특히 작년과 비교하면 20%p나 부정 전망이 상승함
 - : 이러한 배경에는 올해 경제상황이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임
- ☑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임
 - : 특히 불안감의 핵심 이유인 경제 불안감을 진정에 주력해야 하고, 2024년 총선을 앞둔 시기적 특징을 감안할 때 총선 공약 개발시 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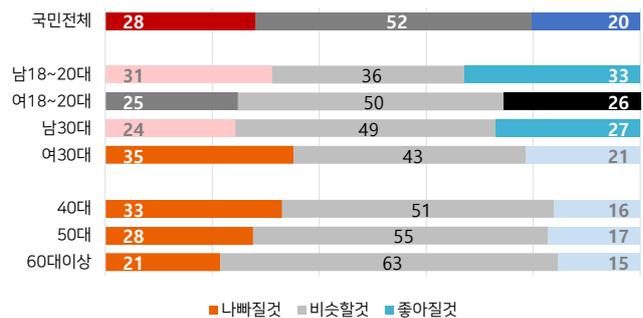
□ 2023년 내 삶, '작년보다 나빠질 것' 7%p 상승

- 국민들은 올해 자신의 삶에 대해 '작년과 비슷할 것'(52%) 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나빠질 것'(28%)이라는 의견이 '좋아질 것'(20%)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그렇다면 선생님 개인의 삶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 비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p 상승함
 -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p 하락함
- '나빠질 것'과 '좋아질 것'만 놓고 우세한 응답 현황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학생 등에 그침
 - '나빠질 것'과 '좋아질 것'이 비슷한 계층은 △여자 20대 △서울 △보수층 △400~6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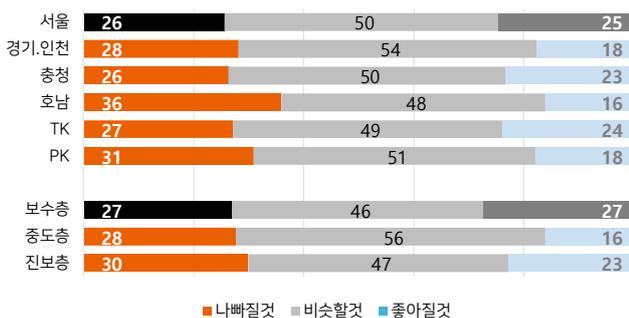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개인 삶 전망 : 국민전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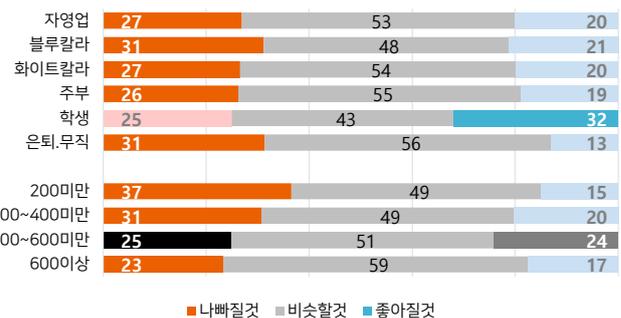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개인 삶 전망 : 성/연령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 개인 삶 전망 : 지역별,이념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 개인 삶 전망 : 직업별,소득별 (단위:%)



Kstat Point

- ☑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나빠지겠지만 자신의 삶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함
 - : 그러나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p 상승해, 부정적 태도가 강화됨
- ☑ 특히 '비슷할 것'을 제외하고 '좋아질 것'과 '나빠질 것'만 비교할 때,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해, 2023년 개인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뚜렷함
 - : 경제적으로 어두운 시기인 2023년은 어느 때보다 희망과 미래 비전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으로 예상됨
 - : 역으로 이러한 희망과 미래 비전이 충족되지 않을 때,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으로 폭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7호는 『국민 스스로 만든 2023년 토정비결』이라는 주제로 2023년 1월 26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1월 사회지표는 1월 19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